

섹스에 관련된 루머의 허실(1)

섹스에 관련된 루머는 너무나 많다. 사례별로 정리해보면 '영계 회춘론'은 근거는 없지만 심리적 효과는 있으며 '소녀경의 다접 블루'는 성적인 스트레스만 누적시킨다. 또 술을 마시면 사정을 늦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코나 입이 크면 성기도 크다', '마른 체격이 강하다' 라는 것은 성기능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특히 자전거를 타면 음경 혈관에 압박을 받아 10분 이상 계속타면 발기력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 젊은 여성과 자주 접촉하면 회춘에 도움이 된다

소위 '영계론'에 관한 소문은 오래 전부터 전래되어 왔다. 젊은 여성과 섹스를 하면 그 여성의 기를 받아 젊어지고 회춘할 수 있다는 설이다. 젊은 여성과의 섹스는 섹스 매너리즘에서 탈피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신선한 섹스를 이룰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반복하다 보면 남성 성기능의 특성상 섹스의 내실을 다질 수도 있다. 젊은 여성이 성적 자극원으로서 더욱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계 회춘론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 단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이블루(섹스를 하되 사정하지 않는 것)는 성능력이 강화된다
중국 방중술의 고전으로 알려진

'소녀경'이 권장하는 방법이다. 다접(多接: 자주 섹스를 하는 것)하되 사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접이블루를 실행하면 사정 후 이어지는 불감응기(不感應期)가 없어 새로운 성적 자극에 즉각 반응하여 다시 성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성 실행능력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남자의 성생리적 특성상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접이블루를 반복하면 오히려 성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성 부속기관에 울혈을 초래하여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 남자의 코가 크면 성기도 크다. 입이 큰 여자가 그것도 크다. 피부 색깔이 거무튀튀한 여성은 색(色)을 좋아한다

서양 사람의 코가 크고 또한 그들의 페니스 크기가 동양인에 비해 크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루머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체구가 다양하듯이 남녀 성기의 크기나 형태는 개인이나 종족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성기의 크기나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신체적 특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마른 장작이 화력이 세다

비만한 사람이 발기 및 기타 성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비만하다고 해서 모두 성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만한 사람은 전치골 부위에 누적된 지방질에 의해 외부 성기가 매몰되어 왜소해 보이기도 한다.



鄭定萬
(준남성클리닉 원장)

그렇다고 마른 체형의 사람의 성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하다. 마른 사람들의 자위적 자찬이 아닐까 싶다.

❑ 술을 마시면 강해진다

적당한 음주는 사정을 지연시키는 등 섹스에 긍정적인 효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만성적 음주나 과음은 남성의 발기부전 및 제반 성기능을 무너뜨린다. 또한 여성의 오르가즘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

인체의 털이 남성호르몬과 관련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성호르몬 레벨이 높다고 해서 성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최근에 '전립선 비대증과 남성형 탈모증'은 강력한 남성호르몬(DHT) 때문에 생기며 임상 실험결과 두 증세간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도 있다.

남성호르몬이 활발하게 작용해 머리가 벗겨지는 것으로 보아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이 학계에서 널리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남성호르몬 DHT가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관심을 가질만하다.

❑ 심장병 환자의 성생활은 위험하다

심장병 환자라고 해서 성생활에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섹스의 대강(大綱)을 지키기만 하면 섹스도 중 심장마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아침에 서지 않는 사람은 발기에 문제가 있다

성적으로 정상인 남자는 수면중 30% 정도의 시간동안 발기된다. 수면중 발기현상이 수면에서 깨어나는 아침시간과 일치되지 않으면 본인이 감지할 수 없을 뿐이다. 아침발기를 감지할 수 없다고 해서 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노년기의 성생활은 장수에 해롭다

규칙적이고 조화로운 성생활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의도적으로 성생활을 억제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 정관수술을 받으면 정력이 약해진다

정관수술은 정자의 수송로를 차단시키는 영구피임수술이다. 남성호르몬을 제조하는 라이디히 세포의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임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더욱 내실있는 섹스가 가능해진다.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대는 것을 거세개념으로 오인하는데서 유래된 소문이다. 고환은 정자를 만들어내는 조정작용과 남성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이 있다. 정관수술은 정자 수송로인 정관을 폐쇄시키는 수술이며 내분비 기능과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남자의 성기능에 관여하는 내분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세시절에는 오히려 정관수술을

회춘의 수단으로 시행한 적도 있었다. 임신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히려 섹스의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

❑ 자전거를 타면 발기력이 약해진다

장시간 자전거를 타게되면 몸무게의 절반 정도가 좁고 딱딱한 안장에 집중되어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음경부위가 무감각해지고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 현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심해져 55세 남성이 하루 12분간 고정 자전거를 타면 발기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됐다(스칸디나비아 신경학회지). 또한 남자 싸이클 선수는 일반 육상 선수에 비해 발기부전의 발생률이 4배나 높고 여자 싸이클 선수는 클리토리스 기능부전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발표했으며 남자 발기부전 환자의 4% 가량이 자전거 타기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보스톤대학, 어윈 골드스타인교수). 이 또한 회음부에 있는 혈관과 신경이 압박되어 성기능 및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전거 타기로 완전히 발기불능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자전거를 탈 때는 매 10분마다 자전거에서 내려 회음부로 혈액이 순환되도록 도와주고 산악(山岳)과 같이 노면상태의 굴곡이 심한 지역에선 자전거를 타지 말고 자전거 안장은 엉덩이 전체가 얹혀지는 넓은 안장의 사용을 권유한다.⑤7

〈다음호에 계속〉